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 ■ 최근의 세제개혁의 중점은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이란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증치세의 과세대상으로 전환하는 것을 의미함. 즉 이전에 영업세를 징수하였던 과세대상에 대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는 것으로 전환하는 것을 가리킴.
- 중국은 증치세와 영업세의 과세대상을 중첩되지 않도록 세수제도를 구축하고 있음.
- 증치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화물이나 기타 가치 있는 재화의 공급이고, 영업세의 과세대상은 주로 용역의 공급임.
- 중국의 증치세제는 한국의 부가가치세제와 유사한 세제인데,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와 용역의 공급이나 중국의 증치세 과세대상은 재화(중국에서는 화물이라는 용어를 사용)의 공급이며 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함.
- 중국에서 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를 과세하는 정책에 대한 유일한 예외는 가공수리수배용역에 대하여는 영업세 대신에 증치세를 과세하였음.

## ■ 2012년1월1일부터 상해시를 시범지역으로 정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을 시행하고 있음.

- 상해시는 서비스업이 발달해 있고 그에 대한 효과의 측정이 상대적으로 쉽다고 보고 상해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함.
- 2012년1월1일부터 상해시의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화복무업 등에 대해서 영업세 대신에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하는 시범지역으로 정하고 약 13만개의 기업을 심사하여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참여토록 함.
- 2012년8월1일부터 연말까지 북경, 천진, 강소, 절강, 안휘, 복건, 호북, 광둥 등의 성급 행정단위와 영파, 하문, 심천 등의 도시를 시범지역에 포함시켜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화복무업에 대하여 증치세를 징수하도록 함.
- 시범대상에 포함된 기업수는 약 91만개 기업이 될 것으로 추산함.

## ■ 전환대상 업종에 우선적으로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업을 포함하였음.

- 교통운수업은 생산유통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

- 교통운수업의 운수비용 및 고정자산은 증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이 되어 증치세제의 전형적인 운용사례가 될 수 있음.
- 현대서비스업은 국가경제사회발달척도의 중요지표가 되므로 개혁을 통하여 이를 발전시킴은 곧 국가의 종합실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됨.
- 현대서비스업은 제조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이를 발전시킴은 곧 제조업의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음.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대상업종도 계속 확대하고 있음.

- 원래의 영업세 과세대상업종은 유통운수업, 건축업, 금융보험업, 우편통신업, 문화체육업, 오락업, 서비스업, 무형자산 양도 및 부동산매출임.
- 2012년 시범실시 대상 업종은 교통운수업과 부분현대화복무업이었으나 그 대상 업종을 우편통신업, 철로운수, 건축설비 등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음.

■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세수의 감소를,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조세부담의 경감을 초래함.

- 증치세는 중앙지방공향세이고 영업세는 지방세에 속함.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지방세 세수를 줄이고 중앙지방공향세를 늘리게 되어 지방세 세수감소를 초래하게 되므로 정부에서는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에 의한 증치세는 전액 지방정부의 세수에 편입되도록 함.
- 최초의 시 범지역인 상해시를 보면 대상 종목에서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간 약 225억원 이상의 감세효과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10% 이상의 서비스업무가 증가되는 효과가 있다고 추산함.
- 북경시는 2개월 간의 시범실시로 약 25억원의 세수감소가 있었음.
- 정부의 세수감소는 상대적으로 개인 또는 기업의 조세부담을 감소시킴.
- 조세부담의 감소폭이 가장 큰 기업은 중소기업 중 그 규모가 소규모납세인의 범주에 속하는 기업임.
- 이들 소규모납세인에 속하는 중소기업은 영업세를 납부할 때 규모의 고려 없이 과세표준의 5%를 세금으로 납부하였으나 증치세로 전환한 후에는 과세표준의 3%를 세금으로 납부하여 40%의 조세부담 경감의 혜택을 누림.
- 이러한 조세부담의 경감효과로 인하여 시범지역을 조속히 확대하여 모든 기업이 조세경감효과

를 동일하게 누리도록 하여야 함.

- 정부 관련인사의 설명에 따르면, 어떤 기업은 문화창의산업에 속하여 증치세 전환 후 적용세율이 6%가 되었고, 2011년에는 1200만원의 수입액에 5%의 영업세율을 적용하여 60만원의 영업세를 납부하였으나 증치세로 전환한 후에는 72만원의 증치세 매출세액에서 24만원의 증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48만원의 증치세를 납부함. 결과적으로 증치세로 전환한 후에 12만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였음.

#### ■ 조세부담이 증가한 기업도 존재함.

- 전체적인 관점에서는 납세자의 조세부담이 감소하였으나 어떤 기업이나 어떤 업종에서는 오히려 조세부담이 증가한 경우도 있었음.

- 조세부담이 증가한 주요 업종은 교통운수업이며 상해시의 발전개혁연구원의 조사에 의하면 이 업종의 63.9%가 조세부담이 증가하였다고 여기고 있는데 이 중 10% 이상 조세부담이 증가했다고 보고한 기업도 27.8%에 이름.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범실시 방안>에 의한 교통운수업의 증치세 징수율은 11%인데, 이는 영업세율 3%에 비하여 꽤 높은 세율이 적용된 결과임(단, 증치세는 기업이 증가시킨 부가가치에 대해서 과세하는데 영업세는 영업액에 비해서 과세함. 따라서 세율의 단순비교로는 조세부담의 경중을 알 수는 없음)

- 교통운수업이나 우편통신업에서는 증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대상(예를 들면 주유비, 차량수리비, 부품비 등의 비용)이 적어서 납부세액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미미하며, 따라서 조세부담이 증가함.

- 정부는 이러한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모색중임.

#### ■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은 증치세제의 변화를 초래함.

- 증치세 세율은 원래 17%와 13% 두 가지였으나 영업세의 증치세 전환 시 추가로 11%와 6% 두 가지 세율을 가산하여 현재의 증치세 세율은 4가지가 존재함.

- 수출 시에 적용하는 영세율은 세율로 인정하지 않고 면세로 인식하고 있으며 소규모납세인에게 적용하는 것은 징수율이라고 하여 세율 범주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음.

- 이러한 여러 가지의 세율은 다른 나라에서는 사례를 찾기 어려움.

## 5월1일 중국 영업세 역사속으로, 그 효과는?

오는 5월1일부터 중국에서 영업세가 사라진다. 그리고 기존의 영업세는 증치세(부가가치세)로 편입된다. 이로 인해 중국내 기업들의 세수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서비스산업이 더욱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2012년 교통운수업과 현대서비스업종에 대해 영업세를 증치세로 전환하는 시범작업을 실시했고 이후 점차 대상을 확대시켜왔다. 그리고 중국 정부는 오는 5월 1일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 시범실시 대상 부문에 건축업, 부동산업, 금융업, 생활서비스업 등 4개 업종을 추가한다. 4개 업종에서 증치세편입이 이뤄지면 중국에서 영업세는 사라지게 된다.

영업세의 부가가치세 전환을 앞두고 인민일보는 러우지웨이(樓繼偉) 재정부장과의 인터뷰를 진행해 이번 조치가 중국의 3차산업을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26일 보도했다.

과거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였던 중국은 재화에는 부가가치세, 용역에는 영업세를 부과하는 2종의 조세구조를 유지해왔다. 영업세는 매출액에 세율을 메기는 구조이며,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에서 원부자재구입비 등을 제외한 부가가치에 세율을 메긴다.

영업세를 내는 기업의 경우 전체매출액이 과세기준이기 때문에, 비핵심분야의 아웃소싱 동기가 약하다. 하지만 영업세 대상 기업이 증치세 대상 기업으로 편입된다면, 비핵심분야를 아웃소싱함으로써 인해 절세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밖에 사무실임대료, 자재비용 등도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때문에 영업세의 증치세편입은 기업들의 조세부담 경감과 아웃소싱 촉진, 3차산업 발전 등의 효과를 낸다.

러우지웨이 재정부장은 "증치세통합은 공급측개혁의 중요한 부분이며 서비스업 혹은 2차·3차산업 혼합기업에 대한 중복징수를 해소하게 된다"며 "부동산매매 역시 영업세가 아닌 증치세가 적용되 부동산수요를 늘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증치세통합 시범실시기간 동안 누적된 감세효과는 6412억위안이었고, 이 기간 동안 3차산업투자비용은 52.6%에서 56.6%로 늘었으며, 3차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5%에서 50.5%로 늘어났다"며 "증치세통합은 3차산업 육성에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리커창(李克強) 중국 총리 역시 국가세무총국, 재정부 당국자들과 함께 한 좌담회에서 "영업세를 부가가치세로 전환하는 세제개혁에 따라 기업들이 올해 5000억위안(한화 약 85조원)의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될 것"이라며 "구조개혁과 재무세제 개혁을 이끌기 위한 중대 조치로 다양한 정책효과가 기대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아주경제, 조용성 기자, 2016.4.26일 보도**